

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위십이지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

황선명^{*1}, 주순재¹, 김숙영², 윤선¹, 박태선¹, 이양자¹, 이용찬³, 박인서³.

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¹, 안산공업전문대 전산정보과²,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³

우리 나라의 1996년 사망원인구조를 살펴보면 위암이 여러 부위암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다른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전체 사망원인 중 네번째를 차지하였다. 이는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 및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*Helicobacter pylori*(이하 *H. pylori*)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균과 여러 소화기질환의 관련성이 문제제기되고 있다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*H. pylori* 감염 양성률은 70-80%으로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받은 260명을 대상으로 *H. pylori* 감염여부를 진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*H. pylori* 감염과 위십이지장질환의 관계 및 *H. pylori*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chi-square test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

조사대상자 239명 중에서 74.5%가 *H. pylori* 감염 양성률을 보였다.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위장질환 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장질환에 따른 *H. pylori* 감염 양성률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($p < 0.05$). *H. pylori* 감염과 관계있는 요인으로서 연령($p < 0.1$), 어린시절의 식수원($p < 0.01$), 짜게 먹는 것($p < 0.01$), 음주($p < 0.01$)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. *H. pylori* 감염 위험요인에의 노출(exposure)를 각 요인별로 기준집단을 정하여 *H. pylori*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, 연령에 있어서 30-49세군과 50세 이상군은 30세 미만군에 비해 상대위험비(age-adjusted odds ratio)가 각각 2.92(90% 신뢰구간;1.05-8.14)와 3.29(90% 신뢰구간;1.20-9.01)로서 *H. pylori* 감염 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다. 그리고 어린시절의 어머니 교육수준은 12년 이상군이 6년 미만군에 비해 상대위험비가 0.17(90% 신뢰구간;0.04-0.74)로서 유의적으로 낮았다. 식습관과 *H. pylori* 감염 관계에 있어서 짜게 먹거나 맵게 먹은 군은 상급게 먹거나 맵게 먹지 않은 군에 비해 상대위험비가 각각 1.46(90% 신뢰구간;0.75-2.82)과 2.62(90% 신뢰구간;0.83-8.19)로서 *H. pylori*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유의적이었다. 그리고 짜고 맵게 먹은 군은 그렇지 않은군에 비해 상대위험비가 4.48(90% 신뢰구간;1.02-19.6)로서 높았으며 유의적이었다.

따라서 *H. pylori* 감염과 관계 있는 위험 요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*H. pylori* 감염 양성률이 증가하였고, 어린 시절의 생활환경중에서 식수원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위생상태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*H. pylori*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*H. pylori* 감염과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. 또한 맵고 짜게 먹는군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*H. pylori* 감염 위험을 보였다는 것은 *H. pylori* 감염이 우리의 식습관과 관계가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겠다.